



금융위,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최 원 선임연구원

■ 금융위는 변액보험의 경우 미흡한 공시수준, 낮은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등의 문제점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보험산업 신뢰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비자 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 보험회사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합리적 수수료 산정과 고객자산에 대한 성실한 운용을 유도할 계획임.

■ 이번 개선방안에는 소비자 중심의 공시시스템 구축, 영업행위 규제 강화, 펀드 운용수수료 체계 세분화, 계열 운용사 위탁 현황 공시, 사업비 부과방식 다양화 등의 방안들이 포함됨.

- 가입 전에는 주요 특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상품 비교」메뉴를 신설하고, 가입 시에는 「변액보험 핵심 상품설명서」를, 보험 가입 후에는 계약자 적립금과 관련한 요약정보를 체계적 제공하도록 공시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 판매자 설명의무 사항에 사업비와 관련된 주요내용 등을 추가하고, 보험회사들이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의무화 함.
- 운용수수료를 귀속주체에 따라 보험회사의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 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하도록 함.
- 각 보험회사별 계열사 위탁비중 공시, 펀드 운용수익률 및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하여 공시함.
-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립금 비례방식 또는 보험료 비례방식 하에서 사업비를 보다 평준화하는 방안,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완화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비 부과방식의 다양화를 유도함.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 금융위, 6/7)